

[6일 창조와 성경연대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x day creation and Bible chronology

발표자 양승원(Seung Won Yang)

제네시스연구소(창경궁로26길 30/02-763-4001) 연구원

한국창조과학회(창경궁로26길 28-3) 이사

Homepage: www.newlifetree.org

E-mail: rmuell@hanmail.net

개요(Abstract) :

6일 창조의 의미는 기독교, 유대교 및 이슬람교 전통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는 믿음을 말한다. 이 6일 창조 이야기는 세계가 질서 정연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 세계, 그리고 그들의 창조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상징적 또는 은유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문자적 해석은 창조가 실제로 6일 동안 일어났다고 믿는 반면, 상징적 또는 은유적 해석은 이 기간을 더 긴 시간의 메타포(Metaphor)로 보거나 신의 창조 행위의 상징적 표현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6일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6일 창조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비교해 볼 것이며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와 6천년 성경연대기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대기 연구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핵심 주제어(Key word) : 6일 창조, 간격설, 유신진화론, 6천년성경연대기.

목차(Order)

1. 서론
2. 본론
 - 2.1. 6일 창조와 성경적 창조론
 - 2.1.1. 성경의 6일 창조 내용
 - 2.1.2.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 창조론 비교
 - 2.1.3. 왜 6일 창조가 문자 그대로 6일인가?
 - 2.2. 6일 창조와 6천년 연대기
 - 2.2.1. 6일 창조의 첫째 날과 첫 번째 천년: 빛과 어둠
 - 2.2.2. 6일 창조의 둘째 날과 두 번째 천년: 물과 궁창
 - 2.2.3. 6일 창조의 셋째 날과 세 번째 천년: 땅과 식물
 - 2.2.4. 6일 창조의 넷째 날과 네 번째 천년: 광체들
 - 2.2.5. 6일 창조의 다섯째 날과 다섯 번째 천년: 새와 물고기
 - 2.2.6. 6일 창조의 여섯째 날과 여섯 번째 천년: 짐승과 사람
 - 2.2.7. 6일 창조 이후 안식일과 일곱 번째 천년: 안식, 쉼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Introduction)

성경의 6일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기원을 들려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이론은 진화론을 근거로 하여 성경의 내용을 전설로 간주하여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의 기본 요소인 시간, 공간, 물질이 20세기 과학,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성경이 말하는 '무에서의 창조' 개념과 연결된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주의 질서가 나타나며, 특히 각 창조 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진화론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자연발생설(abiotogenesis)과 빅뱅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반면, 창조론은 성경의 기록에 따라 창조자(설계자)에 의한 6일 동안의 창조를 주장한다. 새롭게 등장한 유신 진화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진화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 수단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의 6일 창조 기록을 문자 그대로 24시간 하루로 해석하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생물의 생식 주기, 성경에서의 7의 상징성, 그리고 안식일 준수법과 관련된다. 또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와 우주의 나이를 6천년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는 베드로후서 3:8의 "주께서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창조 과정이 역사적 시간에 상응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창조론과 진화론, 유신 진화론 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특히 성경의 6일 창조 기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를 현대 과학 이론과 연대기를 통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연구들을 통하여 성경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2. 본론 (Body)

2.1 6일 창조와 성경적 창조론

2.1.1 성경의 6일 창조 내용

우주만물의 기원에 관한 설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주를 이루는 3요소와 관련이 있다. 이 세 가지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명확하게 정의가 되었는데 바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다. 이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진행방향의 길이는 상대속도(거리/시간)의 크기에 따라 수축한다는 로런츠의 수축가설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E = mc^2$]에 의해 시공물질이 서로 간섭하고 연속체(continuum)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것으로 서로 전환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생성이나 소멸이 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열역학 제 1법칙(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시간(בְּרֵאשִׁית, bereshith, 태초에), 공간(הַשָּׁמַיִם, shamyim, 하늘), 물질(הָאָרֶץ, erets, 땅)을 창조(בָּרָא, bara, creatio ex nihilo-무¹⁾에서 유²⁾의 창조)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있다.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1) 혼돈자체를 플라톤처럼 영원한 물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무에서의 창조사상은 다른 창조설화에는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다. 이러한 무에서의 창조개념은 인간의 인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플라톤은 데미우르고스(Demiurgos)라는 신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물질(chaos)과 형상(形相, idea)이 있었으며 그는 이것들을 결합함으로써 무질서(chaos)에서 질서있는 세계(cosmos)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흠정역, 창세기 1장 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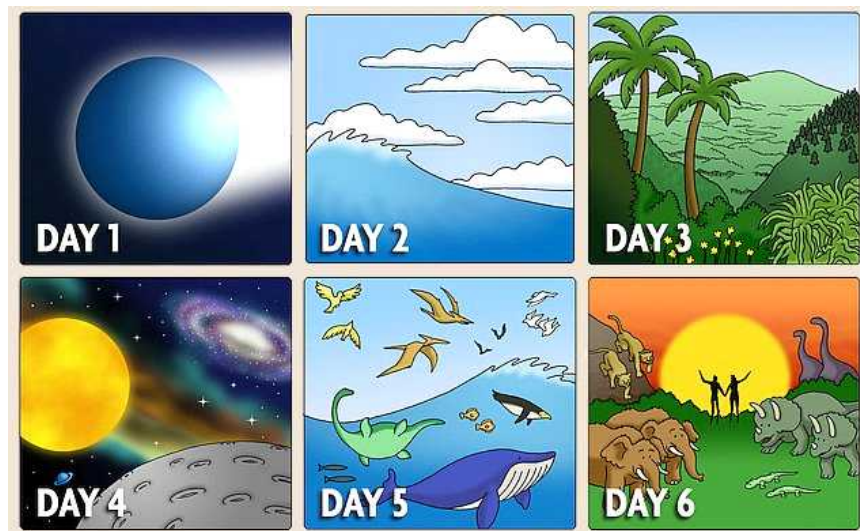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KJV, Genesis 1:1)

성경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신적 계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상상의 산물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셨고 땅을 베푸셨다’(사44:24, 45:12, 욥9:8-10)고 성경은 말한다. 따라서 창조주는 자연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제일원인**’(Causa Prima)을 초월하는 존재이다.²⁾

6일간의 창조내용을 자세히 보면 1장 1절은 전체 6일 창조의 선언 또는 제목과도 같은 말씀으로 2절에 나타난 절대 무(無)의 단계에서 3절의 빛(질서이자 유를 창조)을 말씀으로 만드셨으며 6일 동안에 갖가지의 만물과 생명체를 만드신 것(물질들의 질서의 창조, from chaos to cosmos)을 볼 수 있다. 즉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궁창(하늘)을,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고 육지위에 식물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여섯째 날에 육상동물들을 각각 종류대로 완벽한 형태로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1. 빛	2. 물을 나눈 궁창	3. 물이 드러남, 식물
4. 해, 달, 별	5. 새와 큰 물고기	6. 육축과 인간

표 3. 6일 창조의 질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거대한 우주의 질서가 보이는데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의 피조세계는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피조물을 위한 배경과 준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첫째 날의 빛을 가진 넷째 날의 광명체가 만들어지고 둘째 날의 궁창과 바닷물 속에 다섯째 날의 큰물고기와 새가 살 수 있게 되었고 셋째 날의 육지와 식물을 창조함으로 여섯째 날에 육축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우주가 질서의 세계(cosmos)로 바뀌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창1:31a).

‘무에서의 창조’는 자연과학적으로 본다면 우주의 차원을 뛰어 넘으며 자존하시고 빛의 근원이신 창조주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에너지로 빛을 만드셨으며 빛(시간, 공간, 입자로 이루어진 에너지)의 일부를 다양한 물질로 전환하신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빛을 통해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식물은 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숨을 쉬는 동물이나 인간도 빛이 없

2) 손봉호, [창조의 철학적 의미,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1995], pp 155-162 참조

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이 빛은 질서이기도 하다. 빛은 시간의 기준이 되고 길이의 기준이 되며 물질의 양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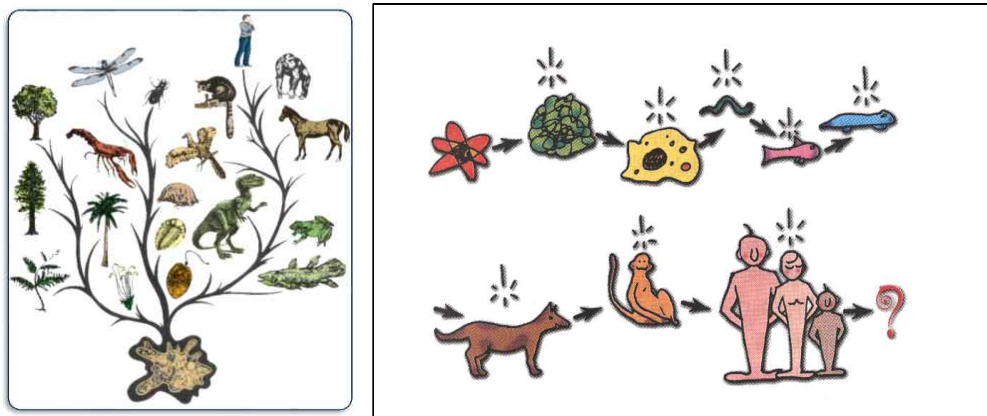
이렇듯 창조주에 의한 ‘**무에서의 창조**’는 ‘물질과 생명의 기원문제’에 관련한 **에너지보존의 법칙인 열역학 1법칙**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 또한 6일간의 질서의 창조 이후 ‘**우주계의 모든 반응은 엔트로피(Entropy, 무질서도:無秩序度)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열역학 2법칙은 **아담의 죄에 따른 형벌의 결과**이다. 즉, 창조 초기에는 질서도가 최고 상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모든 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태양의 회전속도는 서서히 느려지고 있으며 지자기장의 세기도 1,400년 마다 반으로 감소되고 있다. 새 것은 낡아지며 질서는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물질 속에 질서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열역학 제 2법칙인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에 근거하여 설계자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내면세계에서도 질서(거룩)와 조화(사랑)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1.2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 창조론 비교

진화론이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 만물이 원래부터 존재한 원시 원자로부터 빅뱅(Big Bang)³⁾이라는 대폭발 단계를 거쳐 150억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19세기 다윈(C. R. Darwin)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이다. 하지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연발생설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무기물-유기물-코아세르베이트-단세포-어류-양서류-파충류-조류-포유류)은 몇 가지 가상의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장기간(long term)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시간개념**이다. **둘째는, 서서히 점진적으로(slowly & gradually)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환경에 적응하여 변이가 일어난 개체들을 자연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별히 종이 분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개체변이와 자연선택**을 이야기 한다.⁴⁾



3) 빅뱅설(Big Bang Theory)이란 우주가 150-200억 년 전 ‘어제가 없는 어느 한 날(A day without yesterday)’ 무한히 작은 특이점인 ‘원시원자(primordial atom)’가 <우주계란>(宇宙卵, cosmic egg)으로 점차로 팽창하면서 일정한 공간에서 포화상태에 이르자 큰 소리(big bang)를 내며 폭발하여 준성(準星, quaser), 은하계, 태양계,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뜨거운 가스체가 냉각하여 지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4) 격리는 지리적 격리(geographic isolation), 생식적 격리(reproductive isolation)로 나뉜다. 도브잔스키도 <유전학과 종의 기원>(1937)에서 진화의 요인으로 ‘격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수개체군의 격리가 신종의 형성에 중요하다는 집단유전학을 주장했다.

지질학(geology)에서는 지층이 대홍수에 의한 격변적인 변화로 급격히 형성된 것이라는 격변설(激變說, catastrophism)을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이엘(Charles Lyell)⁵⁾과 허튼(James Hutton)⁶⁾에 의하여 지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다는 동일과정설(同一過程說 uniformitarianism)을 주장하였다.

유신진화론이란?

진화론을 인정하면서도 신을 믿는 학자들도 있는데 학문과 종교는 별개로 생각하거나 신이 진화를 이용하여 우주만물을 만드셨다는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유신진화론이라고 한다. 굳이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수의 과학자들과 일반인들이 진화론과 종교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몇몇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진화 메카니즘(단순=>복잡)을 택하셨다.
- (2) 영장류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아담과 같은 현생인류가 탄생하였다.
- (3) 진화과정에 따라 우주와 지구, 생명이 탄생,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 (4)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한다 (간격설).
- (5) 6일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긴 연대로 보고 있다 (날-시대 이론).

간격설(Gap Theory)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해석하는 한 방법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론으로 19세기 초에 대중화되었으며, 특히 과학적 발견과 성경적 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간격설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창세기 1:1) 이후, 어떤 사건(종종 사탄의 타락과 관련되어 설명됨)이 발생하여 세계가 혼돈과 공허한 상태("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 창세기 1:2)로 빠졌다고 주장한다. 이후의 구절들은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한 세계를 재창조하거나 회복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해석된다. 이 이론은 특히 지질학적 기록(수십억 년이라는 동일과정설)과 성경의 6일 창조 기록 사이의 일관성을 확립하려는 시도에서 유래했다.

성경의 6일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의 하루로 보지 않고 하루를 긴 연대(수천년~수억년)로 해석하는 이론을 **날-시대 이론**이라고 부른다. 간격설과 마찬가지로 이 이론은 진화론의 대두와 함께 발전된 이론으로 기존 성경에서 주장하는 약 6천년 정도의 지구의 나이와 공교육의 약 45억년이라는 주장에 대한 충돌로 인한 절충안으로 생겨난 이론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히브리서, 벡후3:8)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참고하여 날-시대 이론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6일의 하루를 천년으로 보기도 하고 몇 달, 몇 년, 몇 억년 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기에 혼란을 주는 면도 있다. 공교육에서 배우는 진화론의 주장과 절충하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유신진화론의 주장은 외관상은 진화론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성경의 기록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비유로 여기는 이론**이다. 오

5) <지질학 원리>(Principle of Geology 1833)

6) <지구의 이론>(Theory of Earth, 1795)에서 "지형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것이며, 현재는 과거의 열쇠(The present is the key of the past)"라고 하였다.

히려 무신론적 진화론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조론의 일부 이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의 진화라든지 화석이나 지층 형성에 있어서 진화론의 이론과 너무나 많은 유사점이 있다.

진화론-유신진화론-창조론 연대 비교

성경의 6일 창조와 진화론 및 유신진화론(창조주의 존재를 제외하면 진화론과 대부분 동일하게 주장)과의 창조순서와 연대, 출현순서에 대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지구와 태양의 형성순서

: 진화론은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경에서는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첫째 날 또는 둘째 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창1:14).

(2) 척추동물 출현순서

: 진화론은 유기물에서 단세포로의 진화이후 어류->양서류->파충류->조류->포유류 등으로 진화하여 지구상에 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다섯째 날 어류(물고기)와 조류(날아다니는 새)가 함께 만들어지고(창1:22) 육지동물과 인간이 여섯째 날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육지식물 출현순서

: 진화론은 육지식물의 출현보다 물속의 생명체가 먼저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다섯째 날 어류(물고기)보다 셋째 날 땅위에 식물들이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있다(창1:11).

(4) 짐승/사람 출현순서

: 짐승과 사람에 대하여도 진화론은 수 억년 이상 동안 어류->양서류->파충류->조류->포유류 등으로 진화했고,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조상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이 함께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창1:25, 27...).

이처럼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은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신진화론이 놀랍게도 현재 기독교 내에 널리 퍼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여 주장하기 보다는 진화론을 사실로 단정하고 믿는 경향이 있다.

2.1.3 왜 6일 창조가 문자 그대로 6일인가?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완전한 기록(원본)이라고 믿는 성도들과 성경연구자들은 6일 창조의 하루를 말씀 그대로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에 대한 몇 가지 근거들을 나누고자 한다.

1) 시간(날day) 측정도구와 등가(等價)의 원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은 넷째 날 광명체의 빛 이전의 빛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이 '빛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최근까지 믿어져 왔던 사실이다. 그러나 첫째 날의 빛은 모든 빛과 생명과 물질의 근원이 되는 질서의 빛으로,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피조 세계를 인간이 알 수 있게 하는 지식의 습득과 전달의 매체이자 물질을 존재하게 한 질서 그 자체이며, 지구상에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원(源)이다. 빛을 만드시고 이를 좋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하여금 (아마도...지구의 자전으

로 생기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sign)들과 계절(season)들과 날(Day)들과 해(year)들을 나타내라.”(흠정역, 창1:14)

시간(날day) 측정도구, 넷째 날의 광명체들

이렇게 시간이라는 차원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넷째 날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 일 년, 계절, 하루(날-day)라는 시간의 흐름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넷째 날부터는 확실하게 하루의 시간이 태양에 대한 지구의 자전을 통해 얻어지는 약 24시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시간은 넷째 날부터 확실하게 알게 된 하루가 24시간일까? 아니면 하루가 긴 연대(한 달? 1년? 1천년? 1만년? 1천만년? 1억년???)일까?

등가의 원리에 따라 천지창조 6일과 안식일 하루를 각각 하루로 여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에 6일 창조 중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수천만, 수억 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넷째 날부터 안식일까지의 시간은 하루를 24시간 하루로 여긴다면 합리적이지가 않다. 즉, 6일 동안 창조하였다는 것은 앞의 3일과 뒤의 3일이 동일한 시간 값을 가질 때 6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3일 + 3일 = 6일이 올바른 논리이지, (긴 기간 X 3) + 3일 = 6일은 올바른 논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만 원짜리 지폐 6장인 6만원(1만원 X 6 = 6만원)을 빌리고 나서 나중에 천 원짜리 지폐 3장과 만 원짜리 지폐 3장, 총 6장을 갚으면서 6장이니 6만원을 갚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등가의 원리에 맞으려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6일 창조기간은 모두 동일한 가치인 24시간이 맞다. 하루를 긴 연대로 보는 것도 그 하루가 1년인지, 1천년인지, 1만년 또는 1억년인지 알 수 없고,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2) 안식일 준수법의 원리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שַׁבָּת, Sabbath)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 계명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언약)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중요한 날로 인식이 된다(민 15:32-36).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대의 표적이자 언약이라고 표현하였다.(출애굽기 31:13-17)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옛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흠정역, 출20:8~11)

이처럼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 그것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날짜에 대한 절대적인 명확한 기준도 주셨을 것인데 그 기준은 **문자 그대로 6일 창조의 하루를 24시간의 하루로 보는 것(절대적/명확)**이다. 그런데 6일간의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2개월로 생각한다면 일곱째 날에 쉬라고 주신 안식일의 하루와 6일간의 하루가 서로 달라진다.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도 다양한 시간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신 계명(민 15:32-36)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상대적/임의)** 명령(사형법, 계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혼을 기준도 없

는 명령 때문에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흠정역, 마16:26)

참새 두 마리 중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까지도 새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혼을 인간 각자의 소견대로 정한 기준 때문에 생긴 잘못으로 죽이신다는 것은 절대로 공의롭지 못한 것이다. (마10:31~33) 우리는 단지 성경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인다.

“참새 두 마리가 일 앓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흠정역, 마10:29~31)

3) 경우의 수(數)의 원리

이번에는 6일 창조기간의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생각해 보는 경우이다. 24시간의 하루가 아닌 그보다 긴 연대인 2개월, 1천년, 1만년, 1억년 등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수억 이상의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4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로 6일 창조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24시간의 하루로 믿었을 경우...**이에 대하여 정말로 6일이 24시간의 6일 이라면 나의 해석에 대하여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6일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닌 긴 기간이어도 책망 받지 않을 것 (면책)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그대로 믿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과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6일 창조의 하루의 시간을 긴 기간으로 믿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정말로 긴 기간이 맞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큰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긴 기간이라는 시간이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수 천 만년, 수 억 년이 될 수도 있다. 즉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기간이 맞을 확률은 수억, 수조분의 1도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과 협상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6일의 시간이 긴 기간이 아닌 24시간이 맞는다면 우리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고 무식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성경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나중에 잘못 믿고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현재 **진화론의 가르침**으로 인해 날들이 변질되었고 오랜 시간(수십억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모든 만물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성경 말씀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느낌으로 믿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최근엔 하나님께서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셨다는 **유신진화론이 유행**하니깐 그에 따라 우주와 지구의 나이, 6일 창조를 긴 연대로 믿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결국 성경 기록에 대하여 정말 그러한지, 합리적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론을 통해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4) 왜 6일 창조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왜 6일이란 시간을 통하여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을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

능하신 창조주라면 6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다 만드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6일이란 시간을 사용하셨을까? 이제는 오히려 천지창조의 기간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6일(안식일 포함 7일)이나 걸렸을까? 에 대한 이유를 성경 기록과 자연만물에 나타난 증거들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로 **생명의 주기가 7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사람의 생리주기도 7의 배수인 약 28일로서 숫자 7은 동물의 발생 주기와도 관련이 있는데 동물의 형성 시기(임신기간)를 살펴보면 쥐가 21(3×7)일, 토끼가 28(4×7)일, 고양이가 56(8×7)일, 개가 63(9×7)일, 사자가 98(14×7)일, 양이 147(21×7)일, 암탉이 21(3×7)일, 오리가 42(6×7)일이며 인간은 280(40×7)일로 모두 7의 배수로 7은 자연에 나타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수이며 성경의 천지창조 후 일곱째 날 안식을 의미하는 창조의 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장 작은 육각형(❁)을 만드는 육각형 수이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 분자 구조도 6각형의 수(Hexagon Number, 일반항은 $H^n = 3n^2 - 3n + 1$)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로 7은 **창조주의 증거(Identity, sign)와도 같은 수로**, 일곱 별(계1:16,20, 2:1)과 일곱 영(계1:4, 4:5, 5:6), 힘센 천사(머리에 무지개 형상을 가진)의 일곱 우레(계10:1~4), 여호와와 일곱 눈(스4:10), 브엘세바에서 우물에 대하여 일곱으로 맹세(약속, 브엘세바, **שבע**), 일곱 촛대,...등등 하나님께서는 7과 관련하여 일하시고 존재하시며,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시록에 언급된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는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교회,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일곱 천사등도 7이 공통으로 존재한다. 또한 7번 용서하라고 하신 점, 나아만 장군이 7번 물에서 씻었던 점, 야곱의 가족 70(7×10)명, 여리고성을 7일째 7바퀴 돌았던 점, 그리스도[Χριστος: 1480(37×40)]도 7개의 문자로 되어있다. 창세기 1장 1절도 7개의 단어(숫자 값2701)로 이루어져 있다.

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이처럼 7(일곱, 쉰바, 맹세, 약속 **שבע**)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자 증거(sign)와도 같은 수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6일 창조의 6일(또는 안식일을 포함한 7일)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정해진 시간 또는 나이인 6천년 (또는 7천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오해하여 6일 창조의 하루가 천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6천년 성경연대기의 사건의 **천년 단위의 주제들**(1-아담과 에녹, 2-대홍수사건, 3-출애굽과 가나안입성, 4-왕국시대와 예수, 5-로마가톨릭과 이슬람, 6-종교개혁과 인권향상, 7-안식)과 **6일 창조의 피조물들**(1-빛과 어둠, 2-물과 궁창, 3-땅과 식물, 4-광명체들, 5-새와 물고기, 6-짐승과 인간 남자여자, 7-안식)과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6천년 연대기 역사의 축소판이 6일 창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나누고자 한다.

1	2	3	4	5	6	7
빛과 어둠	물과 공장	땅과 식물	광명체들	새, 물고기	짐승·인간	안식
						
아담, 에녹	대홍수	출애굽/홍해 가나안	왕국시대 예수	가톨릭 이슬람	종교개혁 인권향상	안식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2.2. 6일 창조와 6천년 연대기-하나님의 시간 설계

에스겔 선지자는 안식일(안식주기, The cycle of Sabbath)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면서 안식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증표, 표적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서 6일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흠정역, 겔20:12)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שַׁבָּת, Sabbath)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 계명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언약)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대의 표적이자 언약이라고 표현하였다.(출애굽기 31:13-17) 6일 창조기간의 하루가 24시간의 하루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일부 하루를 긴 연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6일 창조의 하루가 천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6천년 성경연대기의 사건의 천년 단위의 주제들과 6일 창조 각 하루의 피조물들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흠정역, 벧후3:18)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인 [6천년 연대기표]는 2천년 단위로 나누어 보면 인류공통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아담의 창조부터 2천년이 끝날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인류공통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고 야곱의 출생부터 4천년이 끝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2천년동안 예루살렘의 역사로 나누어진다. 또한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6일 창조의 각각의 날들의 주제인 빛, 물, 땅, 별, 생물, 인간, 안식은 각각의 천년의 주제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서의 성경연대기(창조의 시작-BC 4004년 10월 23일, JP 710년)와 유진 폴스티히의 성경연대기(창조의 시작-BC 4001년 3월 18일 토, JD 260167일)를 함께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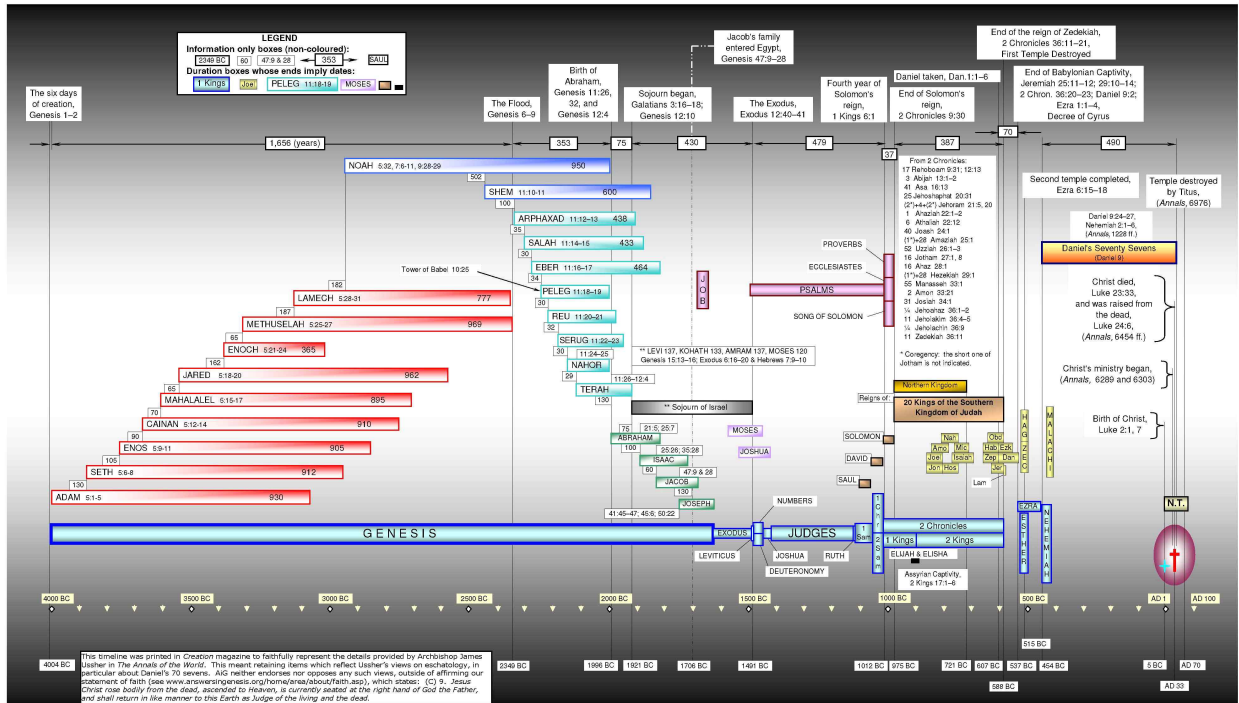


그림 15 어서의 성경연대기(BC 4004년 천지창조)

6일 창조와 6천년 연대기 표의 시간 간격을 잘 살펴보면, 각각의 날과 매 1000년 마다 나타나는 조화를 안식주기에서 볼 수 있다. 아담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 우리는 쉽게 지구의 나이가 현재 6천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00년 마다 나타난 관계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몇 천년동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이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 이후, 지구 나이에 관한 견해는 지구가 아주 나이가 많다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왔고 6일 창조의 시간을 긴 연대로 해석하는 시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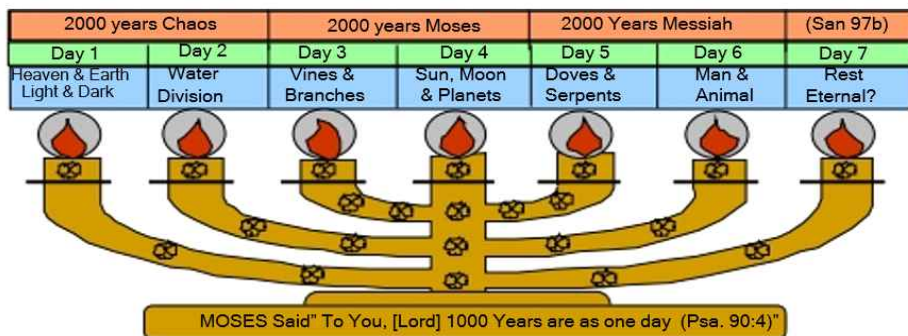


그림 17- 하나님의 시간설계, 천지창조-천년이 하루 같고: 7,000년 연대기

"주의 눈앞에서는 천 년이 단지 지나간 여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흠정역, 시90:4)

위의 7,000년 연대기표와 일곱 촛대 그림은 유진 폴스티히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그림으로 6일 창조와 6천년 역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연대기 연구를 통해 6일 창조와 6천년 역사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이번 장에서는 각 6일 창조의 하루와 6천년 연대기의 각 1,000년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17 유진 폴스티히의 성경연대기(BC 4001년 천지창조)

1	2	3	4	5	6	7
						
빛과 어둠	물과 공창	땅과 식물	광명체들	새, 물고기	짐승, 인간	안식
인류공통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		
아담, 에녹	대홍수	출애굽/홍해 가나안	왕국시대 예수	가톨릭 이슬람	종교개혁 인권향상	안식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2.2.1 6일 창조의 첫째 날과 첫 번째 천년: 빛과 어둠

창조후년도 A.M.(유대력)	그레고리안력 (B.C./A.D.)	세부사건-주제 / 이름	의미	참조
-1년12.21	B.C.4001.03.18	창조, Bara	Creation(무에서의 창조)	출 12:1-2
-1년12.28	B.C.4001.03.24	1.아담, Adam(930)	Adamah(Dust-완전한 흙 사람)	창 1:26
0년01월01일	B.C.4001.03.26	8일째		
130년	B.C.3870년	2.셋, Seth(912)	Appointed one(예정된 자, 보상)	창 5:3
235년	B.C.3766년	3.에노스, Enosh(905)	Mortal frailty(죽음의 연약함, 인간)	창 5:6
325년	B.C.3676년	4.케난, Kennan(910)	Smith(만드는 자, 소유)	창 5:9
395년	B.C.3606년	5.마할랄렐, Mahalalel(895)	God be praised(하나님이 영광 받으심)	창 5:12
460년	B.C.3541년	6.아렛, Jared(962)	Descent(하늘에서 온)	창 5:15
622년	B.C.3378년	7.에녹, Enoch(365)	Dedication(예물로 헌신)	창 5:18
687년	B.C.3314년	8.므두셀라, Methusaleh(969)	When he dies, Judgement(죽음, 심판)	창 5:21
874년	B.C.3127년	9.라멕, Lamech(777)	Conqueror(승리자, 강한)	창 5:25
1056년	B.C.2945년	10.노아, Noah(950)	Rest(안식, 안위)	창 5:28

6일 창조의 첫째 날은 6천년 역사의 첫 번째 천년(0~1,000년)을 나타내는데 **첫째 날의 주제는 빛과 어두움**이고 **천년의 주제는 아담과 에녹**이다. 절대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24시간 하루가 지났다. 이에 대한 첫 번째 1000년은 죄, 즉 어두움이 없는 빛 가운데 창조된 아담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 법을 어겼고(선악과 사건), 이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930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담은 빛 가운데에서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죄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죽었다. 첫 번째 1,000년의 중요한 인물들 중의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녹이다.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 1,000년의 중간쯤(창조 후 AM.622년)에 태어났고, 첫 번째 1,000년이 끝날 때쯤(창조 후 AM.987년) 하늘로 승천하였다. 에녹은 죄로 가득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빛 가운데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다. 이는 죄로 가득한 암울한 시대에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인물인 것이다.

참고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방랑자가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아, 그의 자손들은 멸절되지 않았으며, 특별히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나 음악적 재능 등을 받아 과학과 예술의 최초의 조상이 되었다.(창 4장)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온 세상 가운데 방랑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멸절되지 않고 2천년 뒤에 본토로 돌아왔다. 많은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가 유대인인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아담의 창조 이후 족장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연대도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아담(Adam: Dust)은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가인과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Seth: Appointed One)은 ‘예정된, 예언된 사람’,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에노스(Enos: Mortal Frailty)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게난(Cainan: Smith)은 물건을 ‘만드는 자’, ‘소유’, 마할랄렐(Mahalaleel: God be praised)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라는 뜻을, 아렛(Jared: Descent)은 ‘하늘에서 내려온’, 에녹(Enoch: Dedication)은 ‘헌신, 예물’이라는 뜻을, 므두셀라(Methuselah: When he dies, Judgement)는 ‘죽음과 심판’,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이름에 내포하고 있다. 그가 죽었던 연대를 잘 살펴보면, 아담 창조 이후 1656년, 므두셀라가 죽었던 해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 그의 나이가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것을 보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777세(3× 7× 37)를 살았던 라멕(Lamech: Conqueror)은 ‘이기다, 승리하다’, ‘강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노아(Noah: Rest)는 ‘안식, 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 족장들의 의미를 유심히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흙 사람 아담 대신 보상으로 주신 인간이자,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예물로써 그의 죽음으로 심판을 대신 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예언이다. 즉, 노아까지의 이름들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신 것이다. 또한 포악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미래에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족장들의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2.2 6일 창조의 둘째 날과 두 번째 천년: 물과 궁창

6일 창조의 둘째 날은 6천년 역사의 두 번째 천년(1,000~2,000년)을 나타내는데 둘째 날의 주제는 물과 궁창으로 두 번째 1,000년에서는 물과 관련된 대홍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두 번째 천년은 대홍수(물)의 심판에서 구원자 역할을 한 노아의 탄생(AM.1056년)이 시작쯤에 있고 노아의 대홍수 사건(AM.1656년)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 천년의 끝에는 아브라함의 출생과 바벨탑 사건이 위치하고 있다.

창조후년도 A.M.(유대력)	그레고리안력 (B.C./A.D.)	세부사건-주제 / 이름	의미	참조
AM.1056년	BC.2945년	10.노아, Noah(950)	Rest(안식, 안위)	창 5:28
1556년	2445년	야벳 출생	확장 / 노아 500세 때 낳음	창 6:10
1558년	2443년	함 출생	뜨거움 / 노아 502세 때 낳음	창 6:10
1560년	2441년	11.셈(שם) 출생	명예 / 노아 504세 때 낳음	창 6:10
1656.02.10	2345년0507	방주탑승	7일간	창 7:11
1656.02.17	2345년0514	홍수, Flood(365일)	Flood(홍수기간 365일)	
1657.02.28	2344년0514	방주 밖으로(371일간)		창 8:13
1660년	2341년	12.아르박삭	영역	창 11:10
1695년	2311년	13.셀라	보냄을 받은 자, 확장	창 11:12
1725년	2276년	14.에벨	건너온 자	창 11:14
1759년	2242년	15.벨렉	나뉘, 분리, 분열	창 11:16
1789년	2212년	16.르우	친구 혹은 이웃	창 11:18
1821년	2180년	17.스룩	덩굴손, 매우 단단한 힘, 활	창 11:20
1851년	2150년	18.나홀	콧김을 뿜다	창 11:22
1880년	2121년	19.데라	체류하다, 지체하다	창 11:24
1950년	2051년	20.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창 11:26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홍수 후 인류는 또 다시 하나님을 반역한다. 인간은 다시는 홍수의 심판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였는데 하나

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신 후 전 인류를 땅 끝으로 흠으셨다.

2.2.3 6일 창조의 셋째 날과 세 번째 천년: 땅과 식물

6일 창조의 셋째 날은 6천년 역사의 세 번째 천년(2,000~3,000년)을 나타내며 셋째 날의 주제는 땅과 식물이다. 세 번째 1,000년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으로 셋째 날의 주제인 땅과 먹을 것인 식물과 연관되어 있다. 땅을 약속으로 받는 아브라함이 세 번째 천년의 전후로 출생(AM.1950년)과 언약을 맺는 사건(AM.2035년)이 등장한다. 세 번째 천년의 중간쯤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이전의 시기와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후의 시기 중간에 위치(AM.2540년/BC.1461년)하고 있다.

출애굽 과정 중에 일어난 홍해 사건과 요단강 물이 갈라진 사건 역시 물에서 땅이 드러난 셋째 날의 창조사역과 유사하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도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을 찾기 위해 이동한 것이어서 땅에서 나는 식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 중간 광야생활 중에도 육체의 먹을 것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주제가 셋째 날의 먹을 것인 식물의 창조와도 연결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인 율법을 이 기간 동안 주셔서 육체뿐만 아니라 혼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조 후 년도 A.M.(유대력)	그레고리안력 (BC/AD)	세부사건-주제 / 이름	사건 및 이름의 의미	참조
AM.2035년	BC.1966년	아브라함과 언약	Rest(안식, 안위)	
2050년	1951년	이삭의 출생	웃음/7월 29일(Ab 7)	창21:5
2110년	1891년	야곱(이스라엘) 출생	사기꾼 / 3월 30일(Abib 6)	창25:26
2117년	1884년	야곱 7세, 일식	창조 후 773,377일 지남	
2125년	1876년	아브라함의 죽음		
2200년	1801년	요셉의 출생	더하다.	
2240년	1761년	애굽 이주	야곱의 70명 가족	창47:9
2460년	1541년	모세의 출생		
2540년	1461년	출애굽/홍해...만나	1월(니산월) 15일	출12:1
2580년	1421년	모세 죽음-가나안입성	땅이 주제, 먹을 것(육, 혼) 해결	
2580년	1421년	여호수아의 긴 낮	우박이 먼저... 아비달 29일(0418)	수10:12
2945년	1056년	다윗의 출생	사랑 받는 자.	
2970년	1031년	사울 왕 등극	11년간 통치, 이스보셋 2년 통치	
2983년	1018년	예루살렘 통치시작	헤브론 7년6개월, 예루살렘 33년 통치	삼하5:5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명령에 따라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다.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불평 없이,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랐으며, 그들 모두 스스로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 하신 것처럼, 이삭도 3일째 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후에 내려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리라고 확신했는데, 믿음대로 되었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יהוה אֵלֶּי, Jehovah-jireh - 그것을 그 산에서 보리라, 예비하심)라고 이름 지었다. 이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그곳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물로 드러났다.

2.2.4 6일 창조의 넷째 날과 네 번째 천년: 광체들

6일 창조의 넷째 날은 6천년 역사의 네 번째 천년(3,000~4,000년)을 나타내며 넷째 날의 주제는

광체들이다. 네 번째 1,000년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다윗 왕의 통치와 포로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광체들은 왕을 나타내며,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는 뜻은 다스린다(통치하다)는 의미로 낮은 큰 광체인 포로기 이전의 자기 나라인 히브리 왕들에 의해 다스리는 시대, 밤은 포로기 이후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작은 광체인 이방 왕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시대를 나타내어 넷째 날의 주제인 광체들과 연결이 된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왕으로 약속을 받는 다윗의 출생(AM.2945년)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의 통치 시작(AM.2983년)이 네 번째 천년 직후에 위치한다. 네 번째 천년의 중간에는 포로기가 위치(AM.3413년/BC.588년)하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AM.3995년/BC.6년)이 위치한다.

창조 후 년도 A.M.(유대력)	그레고리안력 (BC/AD)	세부사건-주제 / 이름	사건 및 이름의 의미	참조
AM.3020년	BC.981년	성전건축 시작	솔로몬의 건축시작	왕상6:1
3040년	961년	성전봉헌		
3278년	723년	앗시리아 침공		
3411년	590-520년	예레미야 70년 시작	예루살렘의 포위. 12월21일(Tevet 10)~	겔24:1
3413년	588년/731	예루살렘 멸망	느부갓네살 공격	
3430년	571년	느부갓네살의 복권	7년	단4:16
3450년	551-61년	고레스 칙령	70이레 시작 BC.551-61년	단1:21
3481년	520년	70년 끝. 바벨론 폐허	12월10일(Kislev 24)	학2:15
3499년	502년	예루살렘 재건	7이레 지남 (49년)	단9:25
3933년	68년	힐카누스2세 파면	62이레 지남(434년).	단9:26
3937년	64년	지성소진입(제사 끊김)	1이레 중간.BC.64년6월18일(Sivan 23일)	단9:27
3940년	61년	폼페이 개선식	70이레 끝. 만왕의 왕 개선	
3995년	6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BC.6년 5월 14일/이야르(2)월 28일	마2:2

네 번째 천년의 시작쯤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할 한 왕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솔로몬은 그 메시아의 그림자이다. 그의 이름은 ‘평화 (샬롬-שלום)’를 의미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그의 왕국과 그의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네 번째 천년의 끝날 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5) 6일 창조의 다섯째 날과 다섯 번째 천년: 새와 물고기

6일 창조의 다섯째 날은 6천년 역사의 다섯 번째 천년(4,000~5,000년)을 나타내며 다섯째 날의 주제는 새와 물고기이다. 다섯 번째 1,000년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두 세력인 로마 가톨릭과 아랍 이슬람의 등장이다. 복음을 방해하는 두 세력의 등장으로 기독교인들은 더욱 박해를 받게 되었다. 두 세력 중 가톨릭은 새를 나타내는데 공중에서는 공기가 희박해도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지만, 공기가 더욱 희박한 물속의 물고기와 관련된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이 더욱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드는 세력으로 비유된다.

창조 후 년도 A.M.(유대력)	그레고리안력 (BC/AD)	세부사건-주제 / 이름	사건 및 이름의 의미	참조
AM.4026년	AD.26년	예수님의 사역 시작		
4030년	30년0403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4월 3일 수(Nisan 14)	요19:30
4030년	30년0406	예수님의 부활	4월 6일 토(Nisan 17)	요20:1
4070년	70년	유대인들의 흠여짐	2차성전 파괴, 11월 6일 토(Elul 14)	
4390년	390년	황제, 교황에게 사죄	암브로시우스 굴욕 사건	
4615년	615년	페르시아 예루살렘 탈환		
4622년	622년0322	페르시아 달력 시작		
4690년	690년	예루살렘 황금사원		

다섯 번째 천년의 시작되기 5년 전 이야르월 28일(5월 14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이스라엘 뿐 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전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으로 흠여질 것을 예언하셨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셨다. 실제로 로마에 의해 파괴된 뒤(AD.7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았고, 이후 로마제국에 의해 로마 가톨릭이란 이름으로 기독교가 공인(AD.313년)되었지만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접목된 가톨릭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큰 방해로 받게 되었다. 다섯 번째 천년의 후반부엔 이슬람 세력에 의해 예루살렘이 다스림을 당했고(AD.615년) 복음이 전달되는 데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6) 6일 창조의 여섯째 날과 여섯 번째 천년: 짐승과 사람

6일 창조의 다섯째 날은 6천년 역사의 다섯 번째 천년(5,000~6,000년)을 나타내며 **여섯째 날의 주제**는 짐승과 인간이다. **여섯 번째 1,000년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종교개혁과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짐승은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다. 종교개혁을 통해 이전까지는 인간의 명령을 따르던 짐승의 시대에서 말씀을 직접 보게 되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게 된 인간의 시대로 나누게 된다.

또한 놀랍게도 여섯 번째 천년의 끝부분에서는(1,900년대) 세계전쟁이 끝나고 왕정시대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인권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성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짐승의 창조이후 사람의 창조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창조 후 년도 A.M.(유대력)	그레고리안력 (BC/AD)	세부사건-주제 / 이름	사건 및 이름의 의미	참조
AM.5054년	AD.1054년	동서 교회 분열	이방인 => 유대인	
5517년	1517년1031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517년 10월 31일 수 - 종교개혁	
5946년	1946년1016	전범재판과 사형집행	뉘렌베르그 10월16일 01시16분	
5948년	1948년0514	이스라엘 독립	5월 14일, 예수님 생일(양)	
5950년	1950년	이민법 재정	알리아 운동, 유대인은 이스라엘로	
5967년	1967년0607	6일 전쟁.예루살렘 회복	6월7일(이야르월 28일) 예수님 생일(음)	
5970년	1970년	개정된 귀환법	시민권 부여	
5995년	1995년0528	예수님의 2000 th 생일	유진 폴스티히(2천 송이).한동대	

여섯 번째 천년의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동서 교회로 분열되었다. 교회가 분열되어 갈수록, 그 힘

은 더욱 약해졌고, 복음이 땅 끝으로 전해지면서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가고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호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삼일 쯤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오신지 2천년이 지나고 3천년이 시작되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며, 또한 일으키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6일 창조 이후 안식일과 일곱 번째 천년: 안식, 쉼

6일 창조 이후 안식일은 6천년 역사의 여섯 번째 천년(6,000~7,000년)을 나타내며 그 주제는 안식이다. 일곱 번째 1,000년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안식과 관련된 사건일 것이다. 이 땅에서 6천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피조물들이 남은 천년동안 더욱 안식을 갈망하는 기간이 되어 천년 마지막에 오셔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의 시작쯤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천년이 될 수도 있으며, 하늘에서 통치하시어 안식을 갈망하고 누리는 천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의 중간으로 본다면 8번째 천년(예수의 헬라어 이름인 ⁽¹⁰⁾⁽⁸⁾⁽²⁰⁰⁾⁽⁷⁰⁾⁽⁴⁰⁰⁾⁽²⁰⁰⁾ **Ἰησοῦς**의 숫자 값이 888인 것과 연결 지어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수인 8과 관련하여)에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에서 왕 노릇 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찌되었든, 새로운 천년인 일곱 번째 천년의 주제는 분명히 안식과 관련되어 있을 것은 확실하다.

일곱 번째 천년인 지금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온 세상을 하루 만에 모두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권이 회복되었고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됨과 동시에 이기주의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하루가 멀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안식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는 강제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동할 수 없어서 여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마스크로 인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어야 하며 감염이 되거나 밀접 접촉자가 된다면 격리되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쉬어야 한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안식을 주제로 하는 (또는 안식을 갈망하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 신호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만 해볼 뿐이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흠정역, 마24:36)

3. 결론(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성경의 6일 창조와 6천년 인류 역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에스겔 선지자는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으로 보았는데 이는 6일 창조를 행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출애굽 당시 십계명을 통하여 주신 안식일 준수 계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으로 언급된다. 이는 6일 창조의 각 '하루'를 천년 또는 수 억년 그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담의 창조부터 현재까지의 6천년 역사를 먼저 2천년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아담부터 아브라함,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현재까지의 사건을 각각 연결하였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로 나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1,000년 주기의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6일 창조의 각 날이 1,000년 주기의 역사와 상징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천년은 아담과 에녹, 두 번째 천년은

노아와 대홍수, 세 번째 천년은 아브라함과 출애굽, 땅의 분배, 네 번째 천년은 다윗 왕과 예수님의 탄생, 다섯 번째 천년은 카톨릭과 이슬람의 등장, 여섯 번째 천년은 종교개혁과 인권의 신장, 이스라엘의 독립을 포함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 되는 시기로 해석되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천년은 안식과 관련된 시기로 해석하며, 이 시기가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6일창조의 문자적 이해 관점과 6천년연대기와의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인류 역사를 해석하였다. 앞으로의 이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대기 연구자료들을 통하여 성경의 기록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이고자 한다.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도구로 성경역사와 예언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5. 참고문헌(Reference)

- Albright, W. F. (1921). The Date and Personality of the Chronicler.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40(3/4), 104-124.
- Davis, J. D. (1898). *Davis Dictionary of the Bible*,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p.158
- Faulstich, E. W. (1988). *History, harmony & the Hebrew kings*. Chronology Books.
- Faulstich, E. W. (1990). *Bible chronology and the scientific method*. Chronology Books.
- Flavius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s*, translated by William Whiston, Gregel Publications, Grand Rapids 6, MI, 1960.
- Herodotus. Histories. G. P. Gould and E. H. Warmington ed. *The Loeb Classical Library. Trans. by A. D. Godle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1975.
- John C. Whitcomb, Jr. *Darius the Mede: The Historical Chronology of Daniel*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9), p.24.
- Jones, F.N., (2009). The identity of Ahasuerus in the Book of Esther; in: *The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Master Books, Green Forest, AK, pp.199-205.
- James Ussher, (2016). *The Annals of the World*, sections: 1009, 1027, 1035, accessed 29 June 2016.
- Lyell, C. (1990). *Principles of Geology*, Volume 1 (Vol. 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ael D. Coogan, ed., *The New Oxford Annotated Apocrypha: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With The Apocryph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1388.
- Morris, H. (2002). *The biblical basis for modern science: The revised and updated classic*. New Leaf Publishing Group.
- Stephenson, F. R., L. V. Morrison, and C. Y. Hohenkerk. "Astronomical dating of seven Classical Greek eclipses." *Journal of Astronomical History and Heritage* 23 (2020): 47-62.
- Xenophen. "Cyropaedia." *The Loeb Classical Library*. 2 Vols. Trans. by Walter Miller.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1979.
- Astronomy software, Carina Software - <http://www.carinasoft.com/downloads.html>, Stellarium - <https://stellarium.org/ko/>
- Calendar calculate site, CalendarHome - <https://calendarhome.com/calculate/convert-a-date>